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해운산업 재건 성과 지표 가시화의 해로”

사랑하는 해양수산가족 여러분! 희망찬 기해년(己亥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福) 많이 받으십시오. 2019년 ‘황금돼지의 해’를 맞아, 행운과 풍요의 상징인 황금돼지처럼, 우리 경제와 해양수산업에도 활력과 넉넉함이 넘쳐나길 기대합니다.

지난해에는 「강한 해양수산으로 재도약」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숨 가쁜 한 해를 보냈습니다. 되돌아보면 많은 일들을 추진해 왔지만, 특히 두 가지 역점 사업이 기억에 남습니다. 먼저 침체된 해운산업을 재건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하여 해운재건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다음으로 낙후된 어촌과 어항을 재창조하는 어촌뉴딜 300 사업의 초석을 다진 것입니다.

지난해 연 초부터 계획하고 시작한 사업이지만, 관계부처들의 공감대를 얻고, 적극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약 1천7백억 원이라는 신규 예산을 확보하는 등 기대 이상의 성과를 보였습니다.

해양수산가족 여러분, 그동안 해양수산부가 추진해 온 정책들이 나름 의미있는 성과를 보였지만, 국민들과 해양수산 종사자분들께서 체감하고 만족하시는 데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새해에는 해양수산 전 분야에 걸친 체질 강화와 바다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실현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중점과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2019년에는 해운산업 재건의 성과가 지표로 가시화되는 한 해가 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지난해 마련한 제도적 기반을 토대로 선박 신조 발주와 해운물류기업 재편, 친환경 해운체계의 체질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산항 제2신항 입지를 확정하고 해상물류 정

보플랫폼 등 스마트 해상물류체계 구축을 추진하여 우리나라 항만이 세계적인 물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해양레저·관광산업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 해양관광복합단지 조성 및 해양치유센터, 그리고 마리나 비즈센터 건립 등을 추진하여, 전국 연안 권역별로 특화된 해양레저·관광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해양모태펀드 신설을 새로운 디딤돌로 삼아 상용화와 연계된 R&D 시스템을 구축하고 창업지원센터 기능 강화 등을 통해 해양산업 창업·투자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미세플라스틱과 항만도시 미세먼지를 비롯한 해양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대책과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한국해양교통신공단」 설립과 운항관리자 증원 등을 통해 해양안전에 있어서도 사고 예방과 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최근 남북 관계 개선으로 서해 평화수역과 동해관광특구, 서해 경제특구 등 한반도 바다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사전 준비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근 연안 지역경제는 해운경기 회복 지연과 수산자원 감소, 그리고 조선산업 구조조정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난 세월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늘 고비를 넘어 더 큰 미래를 만들어 왔습니다. 우리에게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충분한 자력이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고 미래를 대비한다면, 우리가 목표로 하는 글로벌 해양강국은 한 걸음 더 다가와 있을 것입니다. 새해에 떠오르는 희망찬 태양처럼, ‘글로벌 해양강국, 대한민국’이라는 항해에 우리의 저력을 아낌없이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한국선주협회 회장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의 차질없는 시행에 노력”

존경하는 국내외 해운가족 여러분! 2019년 황금돼지띠의 해 기해년이 밝았습니다. 돼지는 예로부터 재물이 많이 따르고 복을 부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황금돼지띠의 해를 맞아 해양가족 여러분들의 사업이 번창하고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2018년은 참으로 다사다난 했던 한해였습니다. 특히 한반도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북한 간에 세 번의 정상회담이 개최되었고, 미국과 북한 정상 간에 역사상 최초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우리업계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정부의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이 발표된 데 이어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설립되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출범 2년째 접어든 한국해운연합은 인트라 아시아시장 안정을 위한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금년도 세계경제는 무역 분쟁 장기화, 선진국 경제의 성장률 둔화 등으로 경기둔화 국면에 접어들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운업계도 선복과잉 상태가 지속되고 환경규제 등 당면 과제들이 산적해 있으며 유가 변동성도 커지는 등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장기 불황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시느라 지치기도하고 위축되기도 하시겠지만 이럴 때 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긴장의 끈을 조여야 하겠습니다. 모든 경영환경이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반추해 보고, 경쟁력 향상을 위해 고심하고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지혜를 짜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10년의 위기를 견디어 왔습니다. 새해에는 그동안의 저력을 바탕으로 힘차게 도약하는 한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금년에는 다음사항을 중점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안정적 화물확보, 경쟁력

있는 선박확충, 경영안정 지원 등 각종 정책들이 계획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글로벌 선사들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도록 200만TEU 이상의 메가컨테이너 선사 육성에 노력하고, 한국해운연합을 통한 선사간 협력체제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인트라 아시아 항로안정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국적선 적취율 향상을 위한 선화주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우리 수출입화물의 컨테이너 적취율을 70% 이상 올리고 전략물자는 100% 모두 국적선사가 운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과도한 시장지배력을 무기로 해상운송 시장 질서를 왜곡하고 있는 대기업 물류자회사의 관행을 바로 잡아 공정한 시장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부의 노동정책이 원만한 노사협력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선원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선박평형수관리협약, 그리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황산화물 선박연료유 사용 규제 등 해양환경 규제에도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4차 산업혁명, 2019년부터 시행되는 국제회계 기준 등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해운가족 여러분! 장기불황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시는 해운가족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새해에는 그동안의 어두웠던 마음을 떨쳐버리고 희망찬 발걸음을 내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해운산업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부 당국과 업계 임직원, 그리고 바다에서 고생하시는 해상직원과 항만에서 구슬땀을 흘리시는 하역업계 종사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년사는 1월 1일자임>



남기찬 부산항만공사(BPA) 사장

“공공성 강화, 부산항 구조적 문제 해결에 힘써”

부산항만공사 임직원 여러분, 2019년 새해가 다시 힘차게 밝았습니다. 올 한해도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족분들과 더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부산항의 물동량은 2,167만TEU를 달성하였고, 환적 물동량은 전년 대비 11.5% 성장한 1,146만TEU가 되었습니다. 크게 자축할 일입니다. 지난 8월 말 취임 후 저는 우리 공사가 지향할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고 조직문화를 재건하는데 힘을 쏟았습니다. 2019년은 작년보다 한 단계 더 발전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추진해 나갈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사가 추구하는 가치와 인식을 전환하는 해로 만들고 싶습니다. 고유 사업에 더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데 힘쓰겠습니다. 근로환경 개선, 작업안전망 확충, 항만연관산업 성장 및 IoT기반 혁신성장기반 생태계 조성, 사회적 약자배려 등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인권경영 개념이 우리조직 내에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공동체 문화와 외부적으로 ‘을’을 소중히 여기는 고객으로 여기는 인식전환을 통해 우리가 몸담은 항만물류업계를 함께 행복한 세상으로 만드는데 주력하겠습니다. 공정하고 깨끗한 업무처리를 통하여 보다 청렴한 우리공사를 만들어 가는 것 역시 우리의 주요 과제입니다. 소통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 내부는 물론 국민, 언론, 시민단체, 업계 등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우리 공사가 하는 일을 제대로 알리고 정당하게 평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성 강화를 모토로 부산항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항만 경쟁력을 저해하는 ITT는 단기 대책에 더하여 모든 터미널을 연결하는 내부운송시스템을 구축하는 장기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수 터미널 운영체계 개선을 위해서 운영사 통합 및 단일운영시스템 구축

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서전 부두 운영방식과 운영주체 문제도 주도적으로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미래지향적이며 지속발전 가능한 부산항을 만들어 가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간 여러분들의 업무 추진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는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습니다. 이를 내부에 가둬두지 말고 지식 혁신의 기반으로 삼아야 합니다. 외부 전문 기업 및 기관과 협업하여, 신지식 및 기술 개발을 위한 R&D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는 우리 공사의 인재양성 방향이 될 것입니다.

스마트 항만, 녹색 항만을 위한 투자를 대폭 늘리겠습니다. 신남방, 신북방 정책과 연계한 글로벌 물류거점 확보에 더욱 매진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항과 관련된 모든 종사자들이 함께 더 행복한 한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취약한 산업 부문의 애로 요인을 적극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열악한 항만연관산업의 선진화 방안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지역사회의 기대가 큰 북항재개발 사업은 2020년 기반 시설 완공을 목표로 좀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동시에 무엇을 채울까 고민하는 세부 콘텐츠 개발을 시작하겠습니다. 낭비적인 업무 요소를 제거하여 일과 삶의 조화, 워라벨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직원들의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인력양성 시스템을 재구축하겠습니다. 인재상을 재정립하고 글로벌 수준의 최고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세부 프로그램을 구축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의 올해 경제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부산항을 둘러싼 환경 또한 녹록치 않습니다.

‘도전과 응전’의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2018년 보다 더 나은 올해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봉현 인천항만공사(IPA) 사장

“수요 기반의 신규 항만인프라 차질없는 개발을”

인천항만공사 가족 여러분! 소망과 기대를 담은 2019년 황금 돼지띠의 해, 기해년이 밝았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역대 최대의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실적을 거뒀습니다. 신항 완전 개장에 따른 영향도 있었겠지만, 모두가 합심해 이뤄낸 성과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요동치는 격랑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밀려오는 파도에 움츠러들기보다는 우리의 저력을 발휘하여 기회의 파도에 올라타 더 큰 세상으로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위해 몇 가지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인천항 항만인프라 개발사업은 수요를 고려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인천신항 1~1단계 ‘컨’ 부두 완전개장 이후 물동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새로운 부두시설의 개발소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두개발 후 운영시까지 많은 시간과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면밀한 수요예측을 통해 항만시설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인천신항과 남항, 북항 주변 항만배후단지 공급도 고객요구와 환경변화요인을 반영해 고부가가치 화물창출이 가능한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올해는 크루즈 터미널을 개장하고 운영에 들어가는 첫 해입니다. 터미널 개장에 앞서 이용객과 선사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꼼꼼한 운영준비에 빠진 부분은 없는지 확인해봐야 하겠습니다.

국민과 지역사회가 체감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 서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성장하는 항만으로서 지난 2년간 해마다 300만TEU 이상을 처리하는 항만으로 도약했습니다. 이제 국민이 기대하는 공공기관의 역할 또한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양적성장 요구외에 사회가치 실현요구는 우리가 공공기관으로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이행해야만 할 시대적 사명이 되었습니다. 항만물류업계와의 동반성장 과제를 꼼꼼히 추진해 상생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공사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사회 곳곳에 우리의 온기가 닿을 수 있는 노력도 충실히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과 환경입니다. 재난재해는 평

소 얼마나 능동적으로 대비하였느냐에 따라서 그 피해 규모가 달라지는 만큼 견고한 위기대응능력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환경분야에서도 공기기업으로서 선도적이고 지속가능한 환경 정책을 펼쳐야 하겠습니다. 환경은 비용편익적 영역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친환경 정책과 기술을 적극 발굴해 인천항이 ‘클린항만’으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규모 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는 재정 건전성과 함께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도 고민해야 합니다. 신항 건설외에도 크루즈, 신국제여객터미널 및 부두 등에 많은 투자재원이 투입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해당시설이 경쟁력으로 작용할 수 있고 투자 효과가 되돌아 나올 수 있도록 시설 이용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혁신’과 ‘내실’을 강화해 재무 건전성 유지에도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단순히 비용을 절감하고 투자를 축소하는 소극적인 내실화가 아니라 미래 성장 동력확보를 고민하고 내일을 위한 선택적인 투자에도 명확한 계획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구조를 선진화하고 인천항만의 경쟁력을 키워 최고의 항만으로 거듭나야 하겠습니다.

물동량 유치에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금년 경제상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컨’ 물동량 325만TEU 달성목표는 반드시 전사적인 역량으로 돌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럽항로 등 유치로 인천항이 글로벌항만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올해는 인천항이 세계적인 항만으로 나아가는 조건과 환경을 다져나가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낡은 관행과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근본적인 변화와 개선을 통해 새롭게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인프라 구축과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으로 올해가 인천항이 새로운 도약의 해로 기억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차민식 여수광양항만공사(YGPA) 사장

“새로운 여수광양항의 모습 만들어 갑시다”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여수광양항 가족 여러분! 2019년 기해년(己亥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수광양항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항만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여러분께도 희망찬 새해 인사를 전합니다.

지난해 11월 취임해 2개월여를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시간을 저는 한 마디로 ‘정신 없었다’는 말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신입 사장으로서 새로운 시각에서 우리 공사와 여수광양항의 발전 패러다임을 생각하고, 이를 실현해 나갈 방안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이었지만 그만큼 의미있고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결과 올 한 해가 우리 공사 뿐만 아니라 여수광양항의 미래 모습을 결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가짐, 고민과 노력, 선택과 결정이 우리가 누리게 될 성과와 결과물의 크기, 그리고 보람을 좌우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올해 우리 공사와 여수광양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간단하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여수광양항의 항만경쟁력 강화에 더욱 정진해 나갑시다. 여수광양항은 컨테이너 뿐만 아니라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등 다양한 화물을 처리하는 종합항만입니다. 이러한 화물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미래 신성장 동력 사업 발굴, 컨테이너부두 활성화, 배후단지 글로벌 기업 유치 등 새로운 여수광양항의 모습을 만들어 갑시다. 우리 공사의 설립 목적이자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요자 중심의 인프라 확충과 항만 운영의 효율성 향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급변하는 글로벌

별 해운환경에 따라 항만 4차산업,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과 개념들이 해운항만물류업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욱 전문성을 기르고, 고객 접점에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고객과 국민께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위험물 부두의 체선문제 해결,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 협력 강화 등 이용자 중심의 부두운영으로 효율성을 제고하여 기업하기 좋은 여수광양항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환경친화적 항만을 조성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항만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합니다.

지역사회와 협력을 통해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고, 동반성장 및 지역상생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하는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성공적 조직운영을 위해서는 구성원 전체의 조직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감대가 필요합니다. 각종 사업이나 시책에 대하여 상하 간 및 부서 간 항상 애정을 가지고 활발하게 소통하여야 합니다. 저 또한 현장중심 경영을 통해 현장에서 보고, 듣고 배우며 현장에서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2019년 올 한 해도 쉽지 않은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다만 저는 마음이 든든합니다. 여수광양항을 위해 일하는 여러분의 열정과 역량이 우리 공사와 여수광양항의 앞날을 빛나게 밝혀줄 것이라 굳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하고 있는 여수광양항과 우리 공사는 충분히 그럴 만한 잠재력과 소재를 보유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회사와 여수광양항의 비전과 가능성을 믿고 힘차게 달려 나갑시다.

모두 힘찬 파이팅으로 더 좋은 여수광양항만공사, 더욱 경쟁력 있는 여수광양항,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 ‘살아있는 전문가 조직’, ‘현장에서 답하는 조직’, ‘국민의 사랑을 받는 조직’을 만들어 봅시다.



고상환 울산항만공사(UPA) 사장

“오일허브 1단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

존경하는 항만가족 여러분! 새해에는 항만가족 모든 분과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지난해에는 미·중간 무역전쟁, 세계경제의 침체 우려와 그에 따른 울산 주력산업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항만가족의 노력에 힘입어 울산항이 2년연속 물동량 2억톤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금년은 우리 공사가 출범한지 11년이 지났고, 울산항 발전을 위한 우리 공사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점이지만, 최근 대내외 환경들은 그리 녹록치만은 않습니다. 위대한 성공은 위기 속에서 탄생한다는 말이 있듯이, 울산항 항만가족 모두가 심기일전하여 현재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대처한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울산항의 어려움이 극복되고 미래를 향한 발전기반이 다져질 수 있도록 기해년 금년 다음과 같이 4가지를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오일허브 1단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13년 착공된 동북아 오일허브 1단계 하부시설이 2017년 완공되고, 같은 해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탄력을 받는 듯 했으나, 투자자 구성 난항 등으로 인해 현재까지 상부시설 착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행이 올해는 우리공사를 포함한 상부시설 투자자의 지분 및 사업구조 개편이 완료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정부차원의 지원 및 규제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한국석유공사 등과 협력을 강화해 1단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항만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안전은 다른 어떤 것 보다 항상 최우선 되어야 할 가치이므로 모두가 안전한 근무환경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울산항 해양안전벨트 운

영’, ‘울산항 해양기상정보 서비스 고도화’ 등 울산항의 안전을 위한 제반 사항들을 보다 꼼꼼하게 점검하고 관리·운영해 나가면서 항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요소 제거 등을 적극 추진하고, 비산화물 수송차량 덮개 사업지원, 친환경 선박지수(ESI) 운영 활성화, 울산항 대기 측정소 설치·운영 등을 통해 울산항의 대기환경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동반성장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해양산업간 일자리 연결을 통한 일자리 불균형 해소 및 해양산업 창업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해양산업 신성장 육성 펀드 참여, 해양산업 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융편관건선텩 지원 및 해양레저 스포츠 후원 등 해양산업 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중심 경영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사람의 의견과 지혜를 모으면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집사광익(集思廣益) 정신을 바탕으로 공사 경영에 항만가족 여러분과 국민들께서 참여하는 체계를 다져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도 우리 공사의 각종 의사결정에서부터 경영피드백까지 대부분의 과정에 고객께서 참여하고 있으나, 누락 또는 보완해야할 부분 등이 있는 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등 국민참여 경영체계를 튼튼하게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정신을 집중해서 전력을 다하면 어떤 일에도 성공할 수 있음을 뜻하는 ‘중석몰축(中石沒鏃-손 화살이 돌에 깊이 박혔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2019년은 안팎으로 곳곳에 위협요소가 도사리고 있으나, 항만가족 여러분들과 우리공사 임직원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올해 기해년 울산항이 활력이 넘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정기 한국선급 회장

“검사 및 심사의 품질제고, 고객관점 서비스 강화”

우리선급 가족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선급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임직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 한해 우리가 이룩한 성과가 작지 않지만, 산업 환경의 변화는 긴장의 끈을 한순간도 놓을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영환경은 우리에게 이제까지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존 방식으로 다가오는 도전에 맞서다가는 생존을 담보하기 어려운 여건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런 고민의 결과로 연말 조직개편을 시행했습니다. 올 한해는 새롭게 정립된 조직을 바탕으로 미래로의 변화를 하나씩 추진하고자 합니다. 2019년도 우리선급 몇 가지 주요 전략방침에 대한 적극적인 동참과 노력을 요청합니다.

검사 및 심사의 품질제고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검사와 심사의 품질은 선급의 기본가치이며 평판과 직결됩니다. 무엇보다도 등록선의 안전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대형 노령선과 용도변경 VLOC 안전성 향상을 위한 검사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고객관점의 서비스를 강화해야 합니다. 모든 비즈니스의 시작점과 종착점은 바로 고객입니다. 고객이 우리에게 과연 어떤 서비스를 기대하는지를 심도 있게 분석하여 선 제공할 수 있는 선급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올 한해 우리는 강화되는 환경 규제 대응을 위한 최신정보와, 빅데이터 기반의 선박 위치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관련 정보를 각 선사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객의 니즈가 있는 분야 선급규칙 개발과 기술서비스 제공, 제3자 검사 윈스톱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디지털 선급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해야 합니다. 4차산업 기술의 발전은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쟁선급들은 4차산업 관련기술 개발 및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술주도권을 차지하려는 전략을 지금 이 순간에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신설된 연구부부를 통해 조직 내 산재되어 있던 자원들을 한 곳에 모아 디지털 선급으로의 본격적인 탈바꿈을 시작하려 합니다. 이를 통해 ICT 융합 선박 검사기술 개발을 통한 검사/승인의 디지털화, 3D도면 기반 승인 기술개발 등을 통한 디지털 설계승인 기술개발, 자율운항선박 관련 기술개발, 고객제공 선급서비스 플랫폼의 디지털화에 금년 한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시장선도 수준의 친환경 선박 기술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강화되는 환경규제에 대응하는 가장 대표적 시장의 움직임은 바로 LNG 활용입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작년에 이어 올해 역시 LNG 운송선박의 발주가 끊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선급도 LNG CCS 심화기술을 정립하고 LNG 추진 및 운송선박의 안전도 향상 기술개발 및 관련 규칙 개발, FLBT, LNG 연료추진선 선종별 컨셉 디자인 개발을 추진해 LNG분야에서 우리선급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국내외 대고객 영업을 강화해야 합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선급 등록선 규모는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선급 입급톤수는 매출과 직결되고 IACS를 비롯한 국제해사업계에서 선급의 위상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올 한해 해외선주대상 영업을 강화하여 입급톤수 확장으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소통을 통한 화합과 신뢰의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해 모두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한분 한분이 우리의 변화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변화를 주도할 사람은 '너가 아니라 바로 나' 인 점을 항상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손관수 한국항만물류협회 회장

“국내 항만물류시장의 경쟁력 강화 노력”

존경하는 해운항만 가족 여러분! 희망찬 2019년 기해년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우선 지난 한해 어려운 국내외 경제여건 속에서도 대한민국 경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해오신 모든 분들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며 올 한해도 모두의 가정과 기업에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2018년 한해 우리나라는 미중 무역분쟁의 지속, 미국의 지속적인 금리 인상 및 중국 경제 위기 리스크 등의 대외 위협 요소 뿐 아니라 경기 위축에 따른 내수부진 및 수출경기 둔화 등 대내 악재가 겹치며 컨테이너 물동량은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였지만 벌크 물동량은 감소하는 등 녹록치 않은 한해를 보냈습니다.

이에 우리협회는 지난 한해 항만물류업계의 경영 정상화를 통한 국내 항만의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건전하고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동안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징수가 어려웠던 항만시설보안료를 항만시설사용료와 통합 징수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각 항만공사와 오랜 협의를 해온 결과 2019년 1월 1일부터 전국 항만에서 통합징수가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선박 및 화물 보안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부담이 조금이나마 보전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보안요율 현실화를 추진하여 턱없이 낮은 현행 보안요율을 차츰 정상화하는데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16년 제정된 '항만하역표준계약서'의 활용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제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18년도 TOC 성과평가부터 평가요소로 추가하여 표준계약서 사용 문화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됨으로써 불합리한 계약관계 개선과 과도한 요율 텀핑을 방지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노력했습니다.

실제 '18년도 TOC 성과평가에서 표준계약서 활용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업체가 새로이 상위권에 올라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기도 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 및 중국 경기화로 인한 수출시장 수입 수요 둔화, 미중 무역분쟁 우려 및 반도체 등 일부 국내 산업의 성장세 둔화 등 경기 불안요소가 산재되어 있어 항만 물동량 정체가 우려될 뿐 아니라 항만 친환경화 규제 강화에 따른 막대한 비용지출 부담으로 인해 항만물류업계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협회는 이러한 대내외적 위험요소들을 극복하고 국내 항만물류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올해도 전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항만시설 보안료 통합징수 후속 조치 협의는 물론 정부와 함께 항만의 위기 대응력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국가필수해운제도 마련과 하역요금 준수 및 표준계약서 활용을 통한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하에서 해운항만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여러분 모두의 노고에 다시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새해에도 여러분이 바라시는 일과 회사의 목표가 모두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박정석 한국선주상호보험 회장

“보다 많이 찾아가 편리한 서비스 제공”

희망찬 2019년 기해년이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새해 첫 태양의 밝은 빛처럼 올해 우리 해양수산업계도 번성, 발전하여서 모두가 환하게 웃을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며 특히 전 세계 바다에서 항해중인 모든 선원 여러분들의 안전과 그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Korea P&I는 지난 19년 간 해양수산업계와 정부의 후원과 협조에 힘입어 보험료 3000만불, 가

입선대 1000척, 멤버 250개사에 달하는 견실한 우리나라 클럽으로 성장하였고, 이런 성장을 발판으로 충분한 지급능력과 안정적인 재무구조, 신뢰할 수 있는 클레임서비스, 고객 밀착형 위험관리 등을 제공하는 자랑스러운 우리 클럽이 되었습니다. 저와 사무국의 모든 임직원은 이런 성장에 머무르지 않고 Korea P&I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2019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



양창호 한국해양수산업개발원 원장

“미래 해양수산업정책개발 연구기관으로”

해양수산업가족 여러분! 2019년 기해년은 ‘황금돼지띠’의 해입니다. 새해에도 해양수산업가족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에 재물복을 포함한 만복과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최근 해양수산업 분야는 블록체인기술 등을 포함한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이 차츰 접목되어 하루가 다르게 관련 산업들이 성장, 발전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남북평화협력시대를 맞이하여 북한과의 다양한 해양수산업 협력사업이 기대되는 등 해양수산업분야의 2019년 새해는 그 어느 때보다 기대가 됩니다. 하지만 각종 경제지표에서 보듯 2019년에도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 감소 등으로 경기 둔화가 예상되고 성장률이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측되는 등 경제상황이 녹록치 않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틈에서 우리나

라 새해 경기도 그다지 밝지 않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 해양수산업가족 특유의 단결과 화합으로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동시에 미래변화에 대응해 나가는 지혜가 절실히 필요한 한 해라 생각됩니다.

우리 연구원은 대내외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본연의 업무인 조사·연구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여 국민을 위한 미래 해양수산업정책개발 연구기관으로서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은 물론, 해양수산업가족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글로벌 해양강국 실현을 위한 성과를 창출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2019년 올 한 해도 해양수산업가족의 행복과 건승을 빌며, 여러분들이 바라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는 풍성하고 넉넉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겠습니다.

멤버들에게 보다 많이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양 수산업계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듣고 체험하며 멤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즉시 파악하고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신정보, 위험관리, 안전교육, 문의와 상담 등 멤버가 필요로 하는 때, 그런 장소에 멤버와 같이 있는 Korea P&I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멤버들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P&I보험에 대한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편리하게 획득하실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의 전산환경을 개선하고, 모바일로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선진적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대형선을 보유한 멤버들이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모든 임직원들이 전문성, 국제성, 업무역량의 함양에 경주하여 멤버들이 믿고 가입할 수 있는 클럽, 해외 P&I 클럽을 실질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Club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해에도 '한국해운의 안정적인 성장에 이바지 한다'는 설립목표의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한국해운의 힘으로 만든 우리 클럽인 Korea P&I Club을 한국 해운의 중요한 자산이자 인프라로서의 잘 가꾸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양수산 업계와 정부 당국 등 모든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재훈 한국국제해운대리점협회 회장대행

“회원의 소리 경청하고 혜택주는 협회로”

회원사 임직원 여러분! 이상직 회장님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회장직을 사임함에 따라 지난 12월 이사회의결로 회장 권한대행(2019.01.01~2019.02.21)을 맡게 되었습니다. 새해에는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길 바라며, 회원사의 발전과 임직원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협회는 3개사의 새로운 회원사를 영입하고, 각 분과 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하여 해운·물류 업계와 원활한 유대관계를 조성하고, 협회와 회원사간 소통하는 문화를 정착 발전시킨 협회 임원진의 노고에도 심심한 감사를 표합니다.

2019년 해운업의 전망은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양호한 수급 개선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IMO 2020 규제에 힘입은 벌크 운임 상승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또한 달러·원 환율의 상승도 해운업체에게는 유리

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해운시황은 부정기선 중심으로 다소 회복의 기미를 보이고, 정기선 분야도 인수합병과 새로운 얼라이언스의 정착으로 과당경쟁 구도도 완화되어 가고 있음으로 보아 새해에는 조금 더 좋은 시장경제를 기대해 봅니다. 대형 선사들은 물류블록체인을 도입하는 등 해운 업계에서도 4차 산업혁명의 바람이 거세지고 있어, 주요 이슈에 따른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협회 차원에서도 회원사들의 최대 관심사인 해운 선진제도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 외환거래 규정 개선, 항만요율 인상 억제 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며, 회원사의 의견을 경청하고, 임직원들에게 혜택을 주는 협회가 되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도록 할 것입니다.



임상현 한국도선사협회 회장

“최선의 도선을 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지원”

존경하는 도선가족 여러분! 2019년, 기해년(己亥年)이 밝았습니다. 2019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2018년 해운업계는 불황 속에서도 4차 산업 혁명과 함께 찾아온 e-Navigation, 자율운항선박, 친환경 연료추진선박, 스마트항만 개발 등을 지속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항만미세먼지 대책, 해양수산부 남북 협력 등 새로운 이슈도 끊임없이 연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산업에 변화의 바람이 거세게 불어옵니다. 우리협회 역시 변화의 물결 속에서 해안을 찾고자 고심 중입니다. 지난해에는 회원 여러분이 도선사로서 자부심을 느끼며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해운산업분야의 모든 분들이 기대하는 조직이 되도록 협회 임직원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덕분에 활동이 결실을 맺어 2019년에는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2018년 12월 19일부터 개정 도선법(김동철 의원 대표발의)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릅니다. 정부는 전 시·사변과 같은 해운 및 항만 기능 장애와 같은 비상사태에 대비해 비상 인력을 구성해 활동하고자 「국가경제안보를 위한 해운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이에 발맞춰 도선법을 개정해 일부 도선사를 ‘국가필수도선사’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정년을 맞이한 도선사가 3년 범위에서 ‘국가필수도선사’로 활동할 기회를 얻은 것은, 그간 나이 제한(65세)을 이유로 활동에서 배제되었던 제도적 불합리성을 보완하고 장기간 도선사로 활동한 숙련 도선사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큼니다.

또 다른 큰 변화는 도선사가 될 수 있는 응시요건

의 변화입니다. 그간 도선사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 5년의 선장경력이 필요했으나 올해부터는 3년의 경력이면 도선사가 될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최신 대형 선박에 대한 경험을 갖춘 경쟁력 있는 인력이 대거 지원하여 도선사 능력 향상과 우리 조직이 더욱 활성화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2019년 ‘국가필수도선사’ 지정 기준과 절차가 합리적으로 운영되어 도선법 개정에 맞물려 제도가 정착되고, 전 회원이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안을 모으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제도의 정착과 올바른 시행을 위해서는 도선사가 마음 놓고 도선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안전도선 저해요소 등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관계자와의 공개적인 회의, 토론, 세미나 등을 마련할 것입니다. ‘도선환경 변화에 따른 중장기 도선사 수급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현 제도의 개선점을 발굴하고 미래를 대비할 것입니다.

대외적으로는 제2회 아시아도선사포럼(시드니 개최)에 참가해 아시아·태평양 12개 이상 국가와 함께 교류하고 연대할 것입니다. 혹자는 해외교류의 가시적인 성과에 대해 의심하지만, 이러한 활동을 통해 국제도선사협회(IMPA) 부회장을 배출할 수 있었으며, 국제무대에서 활약하는 한국 도선사가 많아질수록 한국 도선서비스뿐만 아니라 IMPA를 통하여 IMO의 국제협약에 우리 의견을 반영하게 할 수 있습니다.

협회 산하의 교육기관인 한국도선안전교육연구센터(KOPEC)도 빠질 수 없습니다. 센터는 지난해 도선법 개정에 따른 보수교육 이행, 자발적인 Azi-

Pod 운용 특별 교육 시행, 교과편성자문위원회 활성화, 2018년도 좁은 연안수로 통항안전성 평가 연구용역 참여 등으로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올해는 정부의 해사안전 5대 미래핵심 전략과제인 ‘한국형 e-Nav서비스를 위한 핵심기술 연구개발 연구용역’에 집중하여 새로운 시스템에 도선사의 입장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도선사 재교육에 심혈을 기울이고 교육의 다양화를 모색한다는 점에서 도선관련 전문분야 뿐 아니라 인문학 특강 시행, 선장·항해사를 대상으로 하는 선사 교육

참여 등을 검토할 것입니다.

끝으로 2009년 이후 인상이 동결된 도선료의 전체적인 조정을 위해 힘쓸 것입니다. 도선사와 이용자 서로 간에 서비스에 대한 믿음과 만족을 바탕으로 적절한 국제적 수준의 도선료를 산정하도록 적법한 논리와 근거를 통해 도선료 체계를 잡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선사 여러분! 협회장으로서 도선사를 위한 활동, 해운산업발전을 위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더욱 큰 지지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김병진 한국국제물류협회 회장

“국제물류산업발전 자문위원단 발족 추진”

회원 여러분! 지난해 회원님들께서 보내주신 관심과 후의에 깊이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회원님의 가정과 직장에 만복이 깃드시길 기원 드립니다.

2018년 우리나라는 남북관계에 새로운 전기를 맞아 남북평화 정착을 통하여 세계평화 무드에 기여한 뜻깊은 전환점을 맞이하였고, 우리 협회 또한 우리나라의 물류강국 입지 강화를 위해 「FIATA RAP&UNESCAP부산 총회」 및 「2018 대중국 수출전략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정부, 관련기관 및 업계의 관심과 함께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인 중국정부와의 제휴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자 노력했던 한해였습니다. 아울러 정부의 ‘국제물류 청년취업아카데미사업’ 운영기관으로 7년 연속 선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통하여 국제물류업계에서 요구하는 최적의 물류전문가 육성과 업계 취업을 연계함으로써 정부의 청년실업 해소 정책에도 일익을 담당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회원사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사업으로 국제물류산업발전 자문위원단 발족 및 관련 법령 개정 추진, 대외협력사업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물류산업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 개최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사업 추진, 협회와 회원사간 소통 증진을 위한 회의 개최와 행사 추진 등으로 한 해동안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특히 제2회 대중국 수출전략 포럼을 개최함으로써 우리 정부·기업과 중국 정부·기업과의 실질적인 협력을 이끌어내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시킬 계획이며, 2020 FIATA 부산 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2019 FIATA 남아프리카공화국 총회에 참석하여 활발한 개최 홍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기해년 한해 회원 여러분이 원하시는 바가 모두 성취되는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며, 회원사 여러분 모두가 하나로 힘을 모아 우리 업계와 협회의 발전을 위해 협조해 주시길 빌어마지 않습니다.



정태길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노사정 머리 맞대고 선원현안 함께 풀어”

친애하는 동지 여러분, 기해년, 동지 여러분과 가족이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대한민국 선원을 둘러싼 해운수산업도 활력을 되찾아 재도약하길 기대합니다.

지난 2018년은 정말로 다사다난했던 한해였습니다. 세계적인 불황은 여전했고, 미중 무역전쟁으로 경제 불확실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영원불변한 것은 없듯이 한반도를 가른 분단의 벽을 넘어 남북정상이 직접 만나 평화를 논의했습니다. 단 한번도 만남이 없었던 북미정상도 회담을 가졌고, 미국인들은 2018년 가장 중요한 뉴스로 북미정상회담을 꼽았습니다.

갈등과 분열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던 연맹도 2018년을 시작하며 다시 하나의 연맹으로 단결했고,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으로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가지 않은 길을 헤쳐가는 동안

오해와 억측이 난무했고, 결국엔 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2018년 연말 법인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해운산업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여기에 선원노련이 노동계측 대표로 참여했습니다. 앞으로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해운산업 재건과 신규 선박 도입으로 고용 확대 및 선원 정규직화 추진을 위해 현안을 함께 풀어갈 것입니다. 지난해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44차 ITF 총회에 참가해 ITF 집행위원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선원노련이 국제무대에서 노동외교를 보다 더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선원노련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신뢰와 지지를 바탕으로 2019년을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형제 노조와 조합원들의 결속력을 한층 강화하고 우리 선원 앞에 놓인 현안을 풀어나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차별화된 해양환경 분야 전문역량 이행”

해양수산 가족 여러분! 2019년 황금돼지의 행운이 가득한 해, 해양수산가족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 공단도 매우 바쁜 한 해를 보냈습니다. 해양환경관리공단에서 해양환경공단으로 명칭변경, 공단의 경영전략 재수립과 조직개편을 단행하였고 노사가 화합하는 가운데 인사제

도, 보수제도 개선과 조직문화 혁신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도 힘써 왔습니다.

새해에도 공단은 ‘건강한 바다, 풍요로운 미래, 행복한 국민 with KOEM’이라는 공단의 비전을 항상 생각



이권희 한국해기사협회 회장

“해기사 현안에 더욱 집중하고 매진”

기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세월의 속도는 나이와 비례한다더니 해가 갈수록 세월은 더 빠르게 흘러가는 듯합니다. 2018년 지난 한 해는 참 다사다난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작년 정권 교체에 이어 적폐 청산, 남북 및 북미 정상 회담, 비핵화 등 큰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부동산 과열 잡기, 경기 하강, 북중 무역 분쟁, 최저 임금 인상 여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슈들이 연이어 터져 나왔습니다.

해운업계에서도 여러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7월 ‘해양진흥공사’의 출범으로 한국해운재건의 발판이 마련됐습니다. 그러나 한진해운 도산의 여파를 극복할 수 있을 지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해기사 분야에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해기 전승을

위한 고용구조 개편, 병역 특례 제도 폐지 저지 등 변화가 요구되는 큰 이슈들이 현재 진행형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업계 관계자 모두는 뜻을 모아 일치단결하여 묵묵히 나아가야 합니다.

새해 첫날에 새긴 다짐들을 자양분으로 하여, 복과 부를 상징하는 돼지의 해인 기해년에는 더 밝은 미래를 향해 비상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올해도 우리 한국해기사협회는, 해운업의 밝은 앞날을 위해, 특히 해기사에 관한 현안에 더욱 집중하고 매진하겠습니다.

득의지추(得意之秋)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바라던 일이 뜻대로 풀리는 때’를 뜻합니다. 지난 한 해를 열심히 보내신 만큼, 2019년 새해에는 그 모든 노력의 결실을 거둘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면서 차별화된 해양환경 분야 전문역량을 바탕으로 공공기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해양환경보전 분야에서는 도서지역의 해양쓰레기 관리대책 수립, 오염퇴적물 준설 확대 및 해양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측정망 관리 추진 등을 통하여 해양환경을 깨끗하게 지켜나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해양방제 분야에서는 5천톤급 다목적대형방제선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침몰선박 2척에 대한 잔존유 조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EEZ 골재단지의 친환경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해양공간계획 수립 지원과 해양수산 분야 기후변화 대

응 및 항만지역 대기질 개선에도 노력할 계획입니다.

지금 해양수산 업계는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해운시장의 장기 불황으로 인한 해운 물류산업의 어려움, 연근해어업의 생산량과 어업인구 감소 등에 따른 수산업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해양수산가족 모두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피터 드러커는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해양수산 가족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노력하여 어려움을 극복하고 풍성한 결실을 맺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며 해양환경공단도 여러분과 함께 뛰면서 응원하겠습니다.



이연승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새롭게 출범”

존경하는 해양수산가족 여러분! ‘황금돼지해를 맞아, 해양수산가족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다 이뤄지는 뜻 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나라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 묵묵히 애쓰시고 우리공단에 많은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해양수산가족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은 우리 공단에 특히 중요한 해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해 12월 7일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확대·개편하여 해양교통안전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는 해양교통안전공단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7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새롭게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공단 임직원 모두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면서도 해양안전 전담 기관의 일원으로 새 출발하는 것에 자부심과 열정을 가지고 해양안전의 선봉에 서서 주어진 책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특히 해양안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선진 해양안전체계 구축함과 동시에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많이 개발되어 현장에 잘 녹아들 수 있도록 정부와 현장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바다에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한편, 우리나라가 글로벌 해양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새로운 출범을 맞아 新 공단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분야에 중점을 두고 공단 설립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 해양교통안전 체계를 구축하여 해양사고가 획기적으로 감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법안 제정 배경의 주 목적은 해양교통 수요증가와 함께 증가하고 있는 해양사고 저감·예방입니다. 해양사고 저감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종합적인 해양교통체계관리 전담기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효과성이 있고 공감할 수 있는 해양사고 예방대책이 개발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함과 동

시에 현장에서 안전 사각지대는 없는지 철저한 안전관리와 점검 등을 실행하겠습니다. 특히, 해양사고의 근본적 원인인 인적과 실 제거를 위해 안전교육사업을 비롯한 어선무상점검, 케어십 프로그램 및 기관모범정비사업자 선정 등 다양한 해양사고 예방 프로그램을 확대·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스마트 검사센터 설립을 통하여 보다 현장감 있고 내실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력과 전문성을 강화하여 실효성 있는 해양교통안전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4차산업기술을 바탕으로 한 기술력 제고 등 전문성을 강화하여 실효성 있는 해양교통안전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공단의 주요사업인 선박검사업무와 여객선 운항관리업무 선진화는 물론 해양안전분야를 아우르는 해양교통안전체계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선진 해양교통안전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산·학·연 기술 공유 및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해양사고 정책지원 및 사고조사 활동 등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겠습니다. 해양안전관련 법령 제·개정 등 정부의 해양안전체계 정비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체감형 해양안전문화정책을 폭넓게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新공단으로의 출범은 명실공히 대한민국 해양안전을 책임지는 대표기관으로의 도약인 만큼, 국민들이 안전하게 바다를 즐기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해양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종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올바른 해양교통정보를 제공하고, 안전교육 콘텐츠 개발 및 광역별 안전교육 허브를 구축하여 대국민 교육·계몽에 앞장서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해양교통방송을 개설·운영하여 해양안전문화가 국민들에게 확산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과제들을 성실히 수행해 나감은 물론 우리나라 해양안전을 위해 공단 임직원의 모든 역량을 한 데 결집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해양수산가족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박근태 한국통합물류협회 회장

“정책대응 활성화, 물류산업 위상강화”

한국통합물류협회 회원사 가족 및 물류인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의 기업과 가정에 번영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2018년에는 보호무역주의 확산, 노동환경 변화 등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도전이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세계적으로 물류는 대형화, 전문화, 융합화가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요 국가와 글로벌 기업에서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범위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물류선진국인 독일의 물류기업들은 전 세계 물류기업 인수를 통해 대형화를 추진하고, IT 기술 활용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아마존, 중국의 알리바바와 징둥 등 글로벌 유통기업들은 물류분야를 핵심 경쟁력으로 확보하고자 대규모 투자를 통해 물류분야 사업 진출은 물론 첨단 기술투자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우리 물류산업과 물류기업도 제4차 산업혁명과 글로벌 시대에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는 물류기업 스스로의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물류의 범위와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물류산업과 물류기업의 경쟁력이 국가 경제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한 단계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물류산업을 더욱더 발전시켜야 하며, 물류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우리 국적의 글로벌 물류기업을 육성하고, 이를 통해 세계적인 물류망이 구축된다면 우리나라 제조·유통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은 한층 높아질 것입니다.

2019년에도 국내외적으로 기업 경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협회를 중심으로 우리 모두가 지혜

를 모아 함께 헤쳐나간다면 희망찬 내일을 함께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2019년 협회는 일자리창출과 물류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비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정책적 지원을 이끌어 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정책대응 활성화, 물류산업 위상강화 등을 2019년도 핵심과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물류기업의 사업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개발 및 대응 기능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물류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건의, 물류기업 애로사항 수렴·건의 등 정부 정책 추진에 합리적인 업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물류산업의 성장세와 중요성에 비해 사회적 인식이 부족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물류의 날 행사, 국제물류산업전 개최 등을 통해 물류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물류산업의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회원사 경쟁력 제고를 위한 회원지원사업을 더욱 강화해 가겠습니다. 단체보험 등 경비절감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운영하고, 물류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문화 조성도 지원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정부로부터 물류인재 육성 자금을 지원 받아 물류재직자 무료교육 등의 과정운영을 확대하여 회원사 및 제조·유통기업의 물류인재양성도 지원하겠습니다.

물류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산업으로 프로세스 혁신 등을 통해 여타 제조·유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등 앞으로 우리 경제를 이끌어 갈수 있는 대표적인 유망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우리 물류인들은 이러한 자긍심을 갖고 2019년에도 새로운 산업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우리 물류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데 함께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조남일 해양회 회장

“올해 창립 35주년, 수익사업 기반 정착의 해”

새해에도 회원님들과 회원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넘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해양회가 올해로 창립 35주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해양회는 사회적 여건변화로 2014년부터 사업수입이 감소하여 적립금을 이체 사용하는 상황에 봉착했으나 2016년부터 운영 효율화를 위하여 경비절감을 하고 신규 수익사업 발굴과 기존사업의 내실화 등으로 재정상태가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지난해에도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춘,추계체육행사 실시, 동호인모임 활성화, 회원위문 활동, 경조사지원 등 계획한 사업을 원만히 수행했습니다. 수익사업으로 2016년도에 원룸임대사업을 개시하고, 2017년 11월부터는 300kW의 태양광발전사업도 시작했으며, 지난 해에는 600kW의 태양광발전소 확보를 계획했으나 정부정책의 변화 등으로 사업규모를 300kW로 조

정, 추진하여 관련 공사가 올 상반기 중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수익사업의 기반이 정착되는 하반기부터는 연간 1억 5,000만원의 전력판매 수입과 기존의 제반 수입 등을 포함하면 연간 운영예산 2억 5,000만원이 확보되어, 적립금을 사용하지 않는 「균형예산」의 편성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같은 재무구조 개선에 따라 금년도 해양회의 운영방향은 지속적인 인건비 등 경상비용 절감과 함께 신규회원 가입 권장을 통한 인적 기반을 확충하고 회원의 친목도모와 복지 지원을 확대하며 동호인모임의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거주 회원들도 지회 중심의 친목도모와 동호인모임 등의 취미활동도 적극 지원하여 활성화되도록 하겠으니,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해양한국 모바일 홈페이지

www.monthlymaritimekorea.com



‘해양한국’이 스마트폰 시대에 걸맞게 인터넷·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용 웹페이지 ‘모바일서비스’와 함께 독자와의 ‘소통’을 위해 ‘Facebook’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용한 정보, 심도있는 분석’이라는 편집 모토를 내걸고 해양한국 인터넷판이 매일 여러분의 스마트폰과 PC로 찾아갑니다.